



전 가 동 향

K2파워 대우발전기 영업권 인수

K2파워(대표 조효상)가 대우종합기계로부터 발전기 국내 판매 영업권을 넘겨받아 앞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K2파워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할 방침이다.

K2파워 관계자는 "대우종합기계와 발전기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권 및 A/S에 관한 제반 권리 등 각종 지적 재산을 받아들이며 명실공히 발전기 종합메이커로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종합기계는 발전기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으며, 대우에 근무하던 직원중 일부는 K2파워로 이직해 업무를 맡게 됐다.

이들 회사의 양수도 계약 내용을 보면 ▲대우발전기의 국내 판매 및 A/S에 관한 제반권리 ▲대우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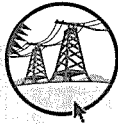
기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대우발전기의 상표 사용권 등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K2파워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K2파워' 또는 '대우' 상표 모두를 사용할 계획이다.

K2파워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출을 대폭 늘린 반면 대우와 영업권 문제로 국내 시장에선 제대로 영업을 못해 반쪽 회사였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제1의 발전기 전문 회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K2파워는 지난 99년 대우발전기에서 분사해 그 동안 발전기 제조와 해외영업만 담당했으며, 지난해에는 3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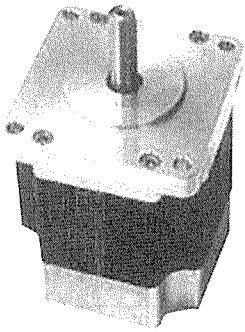
제우기술 스페인에 DC모터 수출

제우기술(주)(대표 황은식)이 스페인에 영구자석형 DC모터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제우기술은 스페인에 향후 5년간 총 25만대의 DC모터를 수출하게 됐다.



전 가 동 향



이 제품은 전류전압 12V에서 66W의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으며 3천rpm의 고속회전이 가능하다.

스페인의 주요 에어컨 제조회사에 공급되는 이 DC모터는 영구자석이 부착돼 있는 직류전동기의 한 종류로, 고속 회전시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특히

황은식 사장은 “이번 DC모터의 수출은 국내 모터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연간 1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우기술은 인터넷을 무역에 활용하기 위해 전기전문 쇼핑몰인 이씨피아(www.ecpia.co.kr)와 해외 수출전문사이트인 나르고(www.nargo.com)를 통해 수출에 따른 경비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개폐기 시험 기준 강화된다.

한전에 공급되는 개폐기에 대한 시험이 강화된다. 현재 개폐기 경우 한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전기연구원 의왕 본원에서 30%정도의 일반 시험을 거치고, 창원 본원에서 나머지 실질적인 성능시험을 거쳐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의왕 본원에서 심사가 끝난 샘플을 그 원상태로 창원 본원으로 보내지 않고, 일부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해온 것이 들끓나 한전이 시험 강화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왕 본원에서 직접 창원 본원으로 보내는 등 관련업체가 중간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업체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한 한전의

시험강화 대책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시 시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폐기 제조업체들이 전기연구원에서 한번 시험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들어가기 때문.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IEC 국제 규격이 변경돼 업체별로 7~8,000만원을 들여 전기연구원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

관련업체들은 “현재 한전에 납품하는 개폐기 가격이 워낙 낮게 책정돼 있는데다 다시 7~8,000만원을 들여 시험을 해야 한다면 업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다”고 불멘소리를 하고 있다.

현재 한전에 납품되는 개폐기 가격은 지난해 부도난 SE테크의 덤핑공세로 인해 불과 2~3년전에



전 가 동 향

비해 30%이상 하락한 상태다.

특히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개폐기 설치 후 고장이 나면 한전에서 철거 후 재 설치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업자가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

고 한전은 고장만 나면 제조업체에 와서 다시 설치 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재설치비까지 부담 하고 있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UPS없이 UPS기능 수행 파워서플라이 개발 ‘눈앞’

UPS제조업체 프롬아이티는 기존 컴퓨터 파워서플라이의 단점을 보완하고 용량을 늘린 파워서플라이의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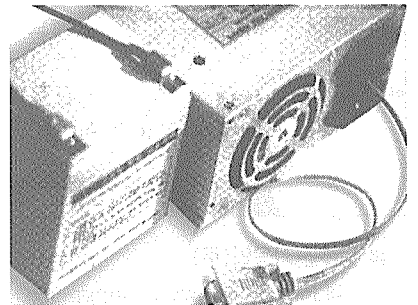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기존 200W급 파워서플라이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용량을 300W급으로 늘린 새로운 제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라며 “품질을 개선 시킨 반면 가격은 낮출 예정이어서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품은 모든 전원상황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보호 한다”며 “통신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UPS

프로그램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어 네트워크 관리도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80% 정도 개발이 완료

된 이 제품은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별도의 UPS가 없어도 UPS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모드를 추가했으며 팬티엄 4 컴퓨터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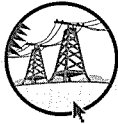
MOF 대인판매방식 선호

국내 MOF 제조업체는 전자상거래보다 대인판매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의 대금결제능력과 구매수량에 따라 납품

가격을 차별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MOF 제조업체 10여곳 가운데 중원전기공업(주)(대표 : 조남진, www.joong-won.co.kr) 등



전 가 동 향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활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세가 급변하는 MOF 제품 특성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인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특히 유통업체의 신용 수준과 구매물량 규모에 따라 판매가를 달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자상거래는 판매가격을 획일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하기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일부 회사의 경우 인터넷으로 제품 주문과 결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거래처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MOF를 비

롯한 대부분의 전기자재는 시세가 급변하는 경향이 있고, 제품주문수량에 따라 가격차가 크편이라 전자상거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단순한 홍보 수단으로 여기고 있을 뿐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MOF 업체 가운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곳은 아래와 같이 6곳으로 조사됐으며, (주)서울산전(대표 구연정)과 삼능전기(주)(대표 임홍찬), 태무전기(대표 박태무) 등 3곳은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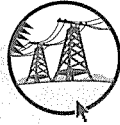
홈페이지 구축 업체

- | | |
|---|---|
| ■ 동우전기공업(주)
(대표 김연수 www.dongnet.co.kr) | ■ 삼흥중전기공업(주)
(대표 조형기 www.sam-heung.co.kr) |
| ■ (주)삼능
(대표 정혁조 www.snpower.co.kr) | ■ 영화산업전기제작소
(대표 공호영 www.younghwaelectric.co.kr) |
| ■ 삼능전기제작소
(대표 한예섭 www.samnung.co.kr) | |

전선업계 통신사업 부진 심화

대한전선은 이보다 더욱 사정이 안 좋다. 올해 두 달간 통신 분야의 매출실적은 150억원, 3월까지 포

함해도 250억원이 채 안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 분야 매출액 494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전 가 동 향

것이다. 또 회성전선은 아직 정확한 실적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 관계자는 “올 들어 광 관련 매출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말할 수 없을 정도”고 말해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이 급감하면서 공장 가동률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다. LG전선은 현재 가동률이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대한전선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은 광 관련 생산설비를 증설했거나 추진 중이어서 가동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수주를 받으면 출고까지 두 세 달이 걸렸지만 지금은 열흘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세계 IT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PS 기술개발 ‘뒷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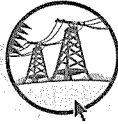
국내 UPS(무정전전원장치)업계가 외산제품의 급속한 시장잠식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있어 업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UPS 시장은 3kVA 이하 소용량의 경우 저가 중국산 제품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잠식했으며 중·대용량 제품도 미국과 유럽의 고가 브랜드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UPS업계는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신규 기술투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외산제품과의 경쟁력 싸움에서 뒤떨어지는가 하면 수출 판로 개척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SEC, 대만의 메가텍과 더불어 세계 3대 UPS프로그램 솔루션 업체 중 하나인 독일의 제네

렉스사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을 맡고 있는 L대표는 “한국의 UPS시장은 제품 복사 등이 판을 치는 등 개발 마인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내수시장만을 놓고 업체간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기술투자와 관련된 조언을 위해 몇 개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봤지만 모두 신기술 투자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L대표는 또 “한국업체들의 제품은 약간의 기능만 다를 뿐 업체만의 고유한 기술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기술투자를 꺼리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독일의 제네렉스사는 한국 UPS시장을 향후 중국시장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위한 교두보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 UPS시장은



전 가 동 향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으며 업체 대부분이 고유 기술을 보유하기 보다는 과거 제품을 단순히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특히 UPS업체의 기술개발 소홀은 수출시장 확대에도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에 UPS제품을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인 E업체의 경우

아직도 이렇다할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서조차 국산 UPS가 품질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소식통은 “중국제품이 싸다고만 하는데 결코 국산보다 품질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며 “현 기술수준으로 수출 판로를 뚫을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도네시아, 계전기 수입 활기

인도네시아의 계전기(HS CODE : 8536-49-000) 시장은 수입시장과 수출시장으로 양분된 상황인데, 1998년까지는 계전기 수요의 절대다수가 수입품에 의존하다 1999년을 기점으로 외국투자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제품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수출량도 수입량의 2배를 넘어서게 되었다.

계전기 수입물량은 기존에 사용해 오고 있는 수입브랜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투자기업들의 수용에 공급되는 물량들이며,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기업들이 본국에서 원 부자재로 들여오는 계전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들여오는 계전기의 물량은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과 비교해 수입비중이 낮은편이며, 주로 현지투자 한국기업들이 수입물량을 충당하고 있

다. 현지 바이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이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가격이 현지 생산품에 비해 크게 높지 않다면 현지진출 가능성이 있다.

수입실적

단위 : 달러

국 가	98년	99년	2000년	2001년(1~3월)
독 일	1,456,583	4,653,722	632,705	275,485
캐 나 다	119,478	2,068,551	541,656	35,966
미 국	1,310,879	1,124,963	1,187,530	267,356
프 랑 스	2,027,956	695,769	2,053,048	263,603
싱가포르	714,760	435,319	900,396	467,618
한 국	252,483	355,159	273,450	60,182
일 본	1,019,591	353,299	820,753	119,551
영 국	985,917	187,702	405,469	93,722
이탈리아	121,891	111,280	61,055	85,169
네덜란드	4,881,451	65,535	1,233,033	1,536
기 타	791,010	418,008	2,007,413	503,453
총 계	13,681,999	10,469,307	10,116,508	2,173,641

(자료=인도네시아 중앙통계국)